

# 肝硬變症(肝積, 肥氣)

金 基 寅  
(홍제 한약방)



인간의 육신은 신비이다 인체는 약60兆個의 세포가 숨쉬고 있다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다 인체는 수 많은 세포와 오장육부의 유기적인 상생상극의 활동으로 존귀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신기한 두뇌작용, 오장육부의 장기, 수 많은 뼈와 근육, 신경계통, 면역체 계통, 어느 하나 소중치 않는 것이 없겠으나 오늘은 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肝의 중요 역할

간은 인체의 화학공장이며 간의 생태가 나빠졌을 때도 심하지 않으면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고 과묵한 臟器로 부른다 그러나 일단 질병에 걸리면 회복이 늦어진다 肝의 주역은 신체내부에서 어떤 변화에 대응하여 체내의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일을 한다 이것을 恒常性이라 한다 못 생명체는 항상성이 깨어지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크게 나누면 1 合成 2. 貯藏 3, 新陳代謝 4 解毒作用 등 넷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무려 500여 종류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 2. 肝硬變이란

간의 질병에는 간염, 간경변, 간암 등으로 분류하는데 간경변이란 고무타이어처럼 단단하게 조아지는 병이다 그것은 오랜 간염으로 시달리면 간세포가 투병하는 동안 무수히 죽고 오글어들어 마치 실뭉치를 포개 놓은 것 같은 섬유화 과정을 거쳐 울퉁불퉁 쭈구러진 현상이다. 간염은 염증이 소멸되면 전상태로 회복되나 간경변은 회복이 불가하다. 혈액검사 간기능검사로도 구분이 쉽지 않으며 확실한 진단은 복강경 검사나 조직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

## ■ 학 술

### 3. 간경변증의 원인

대개 이병의 원인은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 술의 過飲 有毒症 음식이나 有毒症 약을 長期, 過勞, 傷心, 憂鬱症 등이며 처음 지방간이 심하며 간경변으로 진행된다 외국에 비유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병이다

### 4. 간경변의 증상

#### 1 초기증세

쉽게 피곤하고 구역질 식욕부진 또는 헛배가 부르고 소화불량 체중감소 소변색이 진하거나 탁하고 황달기가 나타나고 잇몸이나 코에서 출혈되고 성욕감퇴, 여자는 얼굴색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주로 양뺨 부분에 모세혈관이 생기고 손과 발바닥에 혈관이 확장되어 붉게 보인다 치질로 고생하는 예가 있다

#### 2 말기증세

간세포 기능장애와 합병증이 나타난다 말기에 이르러 간의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 때로는 비장이 커져서 왼쪽 늑골밑에 만져지기도 한다. 복수증이 나타난다 다리가 붓고 혈관이 막혀 출혈이 되고 식도의 정맥에서 피를 토하고 黑色의 피똥을 보기도 한다

### 5. 肝硬變症 증세와 처방

1. 實症의 腹水を 除去하고 慢性肝炎, 肝膿瘍, 胸痛, 消化不良 등

① 처방 적복령, 백작, 各 11 25g, 지실 5.62g, 진피 7 5g, 오약, 황금 목향, 사인, 몰약, 各 3 75g, 침향 1.9g, 인진, 조각자 各 11 25g, 연교초혹, 저근피, 현삼 各 7 5g, 감초 7 5g, 수전복 1日 2~3回 食間

2 高血壓, 肝部腫硬, 疼痛, 消化不良, 面黑

① 처방 회침, 인진, 연교, 各 7 5g, 백작, 백복, 금은화, 시호, 택사, 길경, 백출, 포공영, 향부자, 신곡, 산치자, 반하, 당목향, 천산갑초, 속각자, 저근피, 산사 各 3.75g, 감초 7.5g

3. 症狀 . 肝의 實質組織이 肥大充血

4 肝部の 持續性 疼痛이 있고 高熱, 黃疸, 呼吸困難, 嘔吐, 消化不良 등 重症

## ① 처방 · 加味仙方活命飲

금은화, 조각자 각 75g, 당귀 진피, 황기, 방풍, 백지, 대황, 유향, 몰약, 천산갑, 천화분, 강활, 우방자, 반하, 패모, 시호, 황금, 감초 각 375g

## 6. 간경변인의 바른생활

간경변으로 진단받으면 낙심하여 1~3년 밖에 더 못산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알맞은 약이나 치료를 받고 음식과 섭생을 잘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므로 환자가 투병의 의지와 자신감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술 담배를 끊고 평소 근심, 우울증을 피하고 흥분을 삼가해야 한다

성분도 모르고 온갖 해괴한 음식이나 조약을 권유받아도 반드시 전문인에게 문의하고 자신이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평소 경험에 의하면 간경변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끝내 회복되지 않아 死境에 이르러 한방을 찾는 예가 허다하다 환자나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간질환은 한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악화된다고 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어 가망이 없다하여 마지막 여한이나 없도록 한방을 찾아와서 중태의 환자가 한약으로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전공이 다르다고 타분야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東西醫學의 相互 長短點을 보완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국가 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7. 간경변증의 예방

모든 질병은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40代에 사망율이 높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으나 특히 선진국에 비교하여 인구의 약 10% 정도가 간염 B형바이러스 보균자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간염은 감염이 빠르므로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고 면역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속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간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건강에 유의하지 않으면 불과 수년만에 간경변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지난일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마치 자동차와 운전기사와 같다 난폭한 운전가의 차체가 온전치 못하듯이 정신이 병들고 옳바르지 못하면 결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대구 중구 계산2가 T. 257-0771)